

국별 리포트

#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44천 km <sup>2</sup>	GDP	1,227억 달러 (2012년)
인구	164백만 명 (2013년)	1인당 GDP	818달러 (2012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Taka (Tk)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81.14 (2012)

-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미얀마, 서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음.
- 1947년 인도(주로 힌두교)에서 분리 독립한 서 파키스탄과 동 벵갈(양 지역 모두 주로 이슬람교)이 파키스탄을 건국하였으며, 이후 1955년 동 벵갈이 동 파키스탄으로 이름을 변경함.
- 인도로 인해 완전히 분리된 동·서 파키스탄 간의 지리적 거리와 동 파키스탄 인에 대한 정치적·경제적인 차별로 동파키스탄 내부에서 불만이 증가함. 이후 분리주의를 내세우던 아와미연맹(AL)이 집권하면서 1971년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에서 탈퇴함.
- 2012년 기준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이나 전체 노동인구의 약 4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2011년 약 1,158명/km<sup>2</sup>)를 기록하고 있으며, 몬순 기후에 속해 매년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전 국토의 1/3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
-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와 1973년 12월에 국교수립을 한 이후 이중과세 방지협약, 문화협정 등의 경제, 문화 협정을 체결함. 2009년 이후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 방글라데시 수출액 감소로 2012년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 및 투자심리 악화로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6%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0년에 농업 생산 증가와 해외근로자들의 송금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양허성 차관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투자 활성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여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비슷한 6.5%를 기록함.
- 2012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증가로 민간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유럽재정 위기로 인한 상품수출 증가세 둔화와 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 증가, 의류공장 붕괴사고\*와 파업 발생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악화로 경제성장률은 작년 보다 둔화된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에 위치한 사바르 공단에서 의류 공장이 입주한 8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 □ 세수부족과 정부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방글라데시는 낮은 세금 징수율과 취약한 세수기반, 복잡한 세제 등으로 인하여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석유 제품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제공 등의 정부지출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1년 경제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정부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식료품, 연료, 비료, 전력 관련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정부 지출이 크게 확대되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의 4.1%를 기록함.
- 2012년에는 세수수입 증가로 정부수입이 GDP 대비 12.5%까지 확대되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4%로 축소됨.
- 2013년에는 공급이 부족한 전력, 물, 가스 등 필수자원을 위한 지원과 총선을 앞두고 복지지출 확대 등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타카화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전망

- 2011년 작황부진에 따른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정부의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10.7% 기록함.
- 2012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 국제유가의 상승세 둔화,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 공급 축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7%를 기록함. 금년에는 국내 수요 감소와 타카화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up>f</sup>
경제성장률	5.9	6.4	6.5	6.1	6.0
재정수지/GDP	-3.7	-3.1	-4.1	-3.4	-3.9
소비자물가상승률	5.4	8.1	10.7	8.7	6.5

자료: IMF 및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농업, 의류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 농업은 GDP의 약 18%로 비중은 낮으나 전체 노동력의 45%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72%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2년 기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이중 의류산업이 GDP의 17%를 점유하고 있어 동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본재, 원재료,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 GDP 대비 산업별 비중('12년 기준): 서비스업 54%, 제조업 28%, 농업 18%
  -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400만명(전체 노동자의 5.3%)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동국의 주요산업임.
- 한편,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주요 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

- 집권여당의 부패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평가의 2012년 방글라데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76개국 중 14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부정 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음.
  - 세계은행은 2012년 6월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패 의혹을 이유로 동국 최대 국책사업인 파드마대교 프로젝트(Padma Bridge Project)의 30억 달러 자금 제공계획을 취소함.
-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조세회피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세수율이 낮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시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자연재해에 취약

- 방글라데시는 몬순기후에 속해 7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사이클론이 자주 상륙하는데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
-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에 대한 의존도(인구 기준)가 높은 방글라데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동국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억 6,400만명(세계 8위)에 이르며 총인구의 67%가 경제활동인구(15~64세)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월 평균임금은 43달러로 주변 아시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월평균 임금수준: 캄보디아(61달러), 인도(87달러), 베트남(128달러)
-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 의류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방글라데시는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의류 수출국으로 도약함.
- 한편,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직업교육 부재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으로 노사관계와 노동생산성 개선이 외국 기업들의 유치 확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다. 정책성과

□ 세계 혜택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부터 민간투자 장려,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군수산업 및 원자력 발전, 주화 및 화폐 인쇄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외국에 개방함.
- 8곳의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하여 수출기업에

면세를 적용하는 면세기간 제도(tax holidays) 등 세제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이외에도 정부는 경제특구(EZ: Economic Zones)를 설립하여 부족한 공장 부지를 제공할 계획임.

#### □ IMF 차관 수혜 이후 경제상황 개선

- 방글라데시는 2011년 국가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타카화 평가 절하,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와 외환부족으로 국제통화 기금(IMF)에 차관을 요청했으며 IMF는 2012년 4월 동국에 3년간 9억 5,600만 달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

- 차관지원조건의 핵심은 조세수입 확대와 보조금 축소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 연료와 에너지 가격인상, 은행법 개정, 은행의 대출 이자율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함.

- IMF는 최근 평가에서 방글라데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완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함.
- 정부는 현재 부가가치세법 개정, 연료가격 조정 등 IMF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3. 대외거래

#### □ 의류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감소 전망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대부분의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상품수출에 비해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증가 폭이 더 높아 만성적으로 상품수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수입품인 석유,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수입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2011년에 상품수입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326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은 81억 달러로 확대됨.

-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수입 감소 및 국제유가 안정으로 수입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은 전년보다 축소된 74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의류 수출의 증가로 상품수출이 전년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 증가율은 2%에 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폭은 전년보다 감소한 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경상수지 흑자 시현

- 방글라데시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2006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1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GDP 대비 -0.1%) 되었으며 이후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1.5%로 개선 되었으며 2013년에도 2.7%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많이 진출한 중동지역의 해외노동자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2013년 상반기 방글라데시의 해외근로자수는 21만 명으로 전년동기 37만 명에서 급격히 하락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up>f</sup>
경 상 수 지	3,556	2,106	-165	1,754	3,541
경 상 수 지 / GDP	4.0	2.1	-0.1	1.5	2.7
상 품 수 지	-4,626	-5,872	-8,070	-7,374	-6,026
수 출	15,052	19,209	24,537	24,916	26,909
수 입	19,678	25,082	32,608	32,290	32,935
외 환 보 유 액	10,343	11,178	9,192	12,751	14,692
총 외 채 잔 액	23,802	24,963	27,043	27,061	28,921
총외채잔액/GDP	26.6	24.9	24.2	23.4	22.3
D. S. R.	3.5	3.1	2.7	3.2	3.8

자료: IFS, EIU CRAM.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아와미 연맹의 압도적 총선 승리 후 안정적 집권

- 2006년 10월 칼레다 지아(Khaleda Zia) 총리의 임기 종료 후 총선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자, 2007년 1월 군부는 무혈쿠데타로 과도정부를 수립함.
- 이후, 총선의 무기한 연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국이 불안해짐에 따라 과도정부는 2008년 12월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총선을 실시하였음.
- 동 선거에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Wajed) 총수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AL)이 총 300석 중 229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중임.

##### □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영향력 점진적 확대

- 2011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NP) 지지 후보 100명, 아와미연맹 소속 후보 96명이 당선되어 그동안 야당을 과소 평가했던 아와미 연맹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 2013년에 실시된 주요 지역의 시장선거에서도 주요 야당(BNP)이 지지하는 후보가 잇따라 당선되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선거를 통해 표출되고 있음.
  - 특히, 전통적으로 아와미 연맹(AL) 지지지역인 가지프루(Gazipur)에서 국민당(BNP) 지지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이는 의류공장 사고에 대한 집권 여당의 미흡한 사후처리가 원인으로 분석됨.
- 최근 선거에서 야당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 1월에 예정된 대선 및 총선에서 현 정권의 집권 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 2. 사회동향

### □ 이슬람지도자 사형선고에 반발하는 폭력시위 지속

- 방글라데시 전범재판소는 2013년 1월 최대 이슬람 정당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i)’ 최고 지도자에게 1971년 독립전쟁 당시 종교탄압,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야당 주요 인사들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함.
- 이후 이를 반대하는 이슬람 지지자들과 경찰과의 유혈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 정국의 불안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 야당 주도의 과격시위 빈번히 발생

-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은 현 정권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격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금년들어 5월까지 30번의 과격시위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내년까지 시위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피해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3. 국제관계

### □ 인도와의 관계 개선

- 2010년 1월에 양국간 테러 방지, 국경범죄 척결, 경제협력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과거 국민당 집권시절 소원했던 인도와의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2011년 9월 인도의 맘모한 싱 총리와 2013년 3월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면서 양국은 경제·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음.

□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노력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으로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인도와의 교류 확대가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 향후에도 벵갈만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인도와 중국 두 국가에서 무역과 원조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 태도

□ 외채의 70%가 장기 양허성 차관으로 외채 상환능력은 양호한 편

- 방글라데시의 총외채 규모는 원조자금 증가로 2009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27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GDP 대비 23%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또한, 외채의 70%가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이며 정부가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부문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됨.
- 외채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로 D.S.R은 2~3%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 국제시장 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2013년 6월 국가신용도평가전문가회의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유지,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섬유산업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인프라,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의 국가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함.
- S&P와 무디스는 2010년 4월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안정성,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 시현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외채무에 따른 재정 운영의 유연성

부족으로 각각 BB-과 Ba3 등급을 부여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3. 8)	C3 (2012. 3)
OECD	6등급 (2013. 6)	6등급 (2012. 3)
S&P	BB- (2010. 4)	-
Moody's	Ba3 (2010. 4)	-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민간부문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 18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9), 문화협정(1979), 이중과세방지협약(1983), 투자보장협정(1986),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과학기술협력협정(1995)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방글라데시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8.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철강, 동, 아연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축소된 17.5억 달러를 기록함.

<표 1>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對 방글라데시	2011	2012	2013(1~7월)	주요품목
수 출	1,628	1,459	937	석유제품, 합성수지
수 입	244	295	169	의류, 가죽, 동제품
합 계	1,872	1,754	1,106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6월말 기준 228건, 2억 7,805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함.
  - 업종별로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투자금액 1억 8,402만 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광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순임.

## V. 종합 의견

-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연평균 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의류수출 증가세 감소로 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6.1%을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 투자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세금 징수율,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음. 한편,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 증가로 2011년을 제외하고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함.
- 2008년 12월 총선에서 셰이크 하시나 총수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쟁으로 인한 국정 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2014년 총선 및 대선이 시행될 때까지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방글라데시의 총외채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 장기 공적채무이며 정부의 엄격한 외환규제에 따라 단기적으로 외채상환 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조사역 서은주 (☎02-3779-5705)  
E-mail: seounchu@koreaexim.go.kr